

## 자아통제, 자기신뢰 및 교사애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백 혜 정<sup>†</sup>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자아통제, 자기신뢰 및 교사와의 애착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중 조사시작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청소년 3,449명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씩 3년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은 자아통제, 자기신뢰, 그리고 교사와의 애착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아통제와 자기신뢰는 학교생활 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초기치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각 학년에서 교사와의 애착 정도는 각 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변인 중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자아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학교생활적응, 자아통제, 자기신뢰, 교사애착

---

<sup>†</sup> 교신저자 : 백혜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교총빌딩  
Tel: 02-2188-8818 Email: hbaek@nypi.re.kr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은 그들의 하루 일과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생활의 장(場)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 여부는 현재 그들 개인의 전반적인 삶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청년기 및 성인기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학교적응에 관한 정의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다. 장호성(1987)은 학교적응을 개인이 자신의 지적, 도덕적 성장을 위해 교육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학업성취도를 학교적응의 중요한 측면으로 보았다. 반면 또 다른 연구자들은 자존감이나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등 심리 사회적 변인들을 학교적응의 주요 측면으로 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Ladd, Kochenderfer와 Coleman (1996)은 학교적응이란 개인이 학교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편안해하고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정도라고 정의하는 동시에 학교환경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감정에 보다 큰 비중을 두었다. 이정윤, 이경아(2004) 역시 학교적응에 대해 사회심리적 변인들을 중요시하는 정의를 내렸다. 그들은 학교적응에 대해 개인의 학교규범 및 질서의 준수 정도와 수업참여도가 높으며, 또래 및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조화롭고 적절하며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학교적응이란 결국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사회·인지·정서적 영역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한편 김동배, 권중돈(1998)은 학교적응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학교부적응에 대해 개인이 학교의 교육적 가치, 규범 및 질서와 불일치·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학교 환경과의 관계에서 갈등하고 종국에는 부적절한 행동특성들을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학교적응 또는 부적응에 대한 정의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무척 다양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규미(2005)는 이렇게 다양한 학교적응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조작적인 정의를 내리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을 설정하였다. 그가 제안한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은 모두 4가지로, 각각에 대하여 학교공부 영역, 학교친구 영역, 학교교사 영역, 그리고 학교생활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그는 또한 각 영역은 하위차원들을 포함한다고 주장하며, 요인분석을 통해 학교공부 영역은 학업유능감과 학업가치를, 학교친구 영역은 친구관계 및 상호 협조성을, 학교교사 영역은 교사호감과 친밀감을, 그리고 학교생활 영역은 질서/규칙 준수 및 학교생활만족도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규미가 제안한 학교적응의 하위영역 중 학교공부 및 학교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경험자료 분석에 앞서 선행연구들이 밝힌 학교적응 또는 부적응과 관련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그 요인들은 학교 부적응에 대한 정의만큼이나 다양하다. 그 요인들은 개인적 특성변인과 사회적 변인 등과 같이 크게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학교 부적응과 관련있는 개인적 특성변인들을 살펴보면, 국내외의 많은 선행연구

들은 개인의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생물학적 특성에서부터 자존감, 성격특성, 문제해결능력, 자기조절능력, 통제소재 등과 같은 심리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인들과 학교 적응간의 관계를 연구해왔다(예: 이경화, 손원경, 2005; 이옥주, 2003; 이정윤, 이경아, 2004; 정현희, 2003; Allen, Hauser, Bell, & O'Conner, 1994; Doll, 199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도 특히 자아통제 및 자기신뢰라는 심리적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한다.

자아통제란 “외부의 지시나 감독 없이도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행동을 하며, 미래의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행동을 제지하고 인내하는 능력”을 의미 한다(이경님, 1997). 이러한 자아통제는 개인의 성공적인 학업성취 뿐 아니라 학교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송명자, 1995). 자아통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집단에서는 심리적, 행동적 적응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아통제수준이 높은 집단은 불안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다(Robins, John, Caspi, Moffitt, & Stouthamer-Loeber, 1996). 또한 이들은 청소년기에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빈번하며(Block & Gierde, 1990) 전반적으로 외현적인 문제보다는 내재적인 문제를 갖는 경우가 많다(Hart, Hofmann, Edelstein, & Keller, 1997).

한편 자아통제수준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보다 더 많은 문제를 보일 수 있다. 예로써 이들은 학교에서의 문제행동 뿐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비행습관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일 가능성도 높다(민수홍, 1998; Louge, 1995; Robins et al. 1996). 또한 통제수준이 낮은 집단은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김미란, 2002),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을 보이는 경향도 보고되고 있다(이경님, 2003).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낮은 자아통제는 문제행동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가족의 심리적 환경(남현미, 옥선화, 2001)이나 어머니와의 애착(이경님, 2002) 영향보다도 더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낮은 자아통제 수준은 또한 낮은 학업 성취 및 충동, 공격적인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 스트레스 대처능력(김현숙, 1998; Feldman & Weiberger, 1994; Mischel, Shoda & Peake, 1988) 뿐 아니라 비행(하영희, 김경연, 2003; Beck, 1967; Kaplan, 1979)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자아통제의 정도는 외현적이거나 내재적인 문제행동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행동들은 학교 부적응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자아통제가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학교 부적응과 관련있는 자아관련 변인은 자아통제 외에도 자기신뢰를 살펴볼 수 있다. 자아신뢰란 자신이나 자신이 꾸려나가는 생활 역량에 대한 전반적인 믿음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자기신뢰보다는 자기신뢰의 한 영역 또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이란 자기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신념이나 확신의 정도를 말한다(Bandura, 1993).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정서와 인지, 그리고 행동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들은 자

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교사 및 교우와의 대인관계(김병찬, 1995; 김미숙, 2001; 추미애, 박아정, 2006), 학교수업 및 학교생활(김미숙, 2001; 임유진, 2001; 추미애, 박아정, 2006), 교칙준수(김미숙, 2001) 등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은희(2003)는 소년소녀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제에 대한 대처전략 중에서 문제상황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자기신뢰 유형이 교사 및 교우 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등으로 구성된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은 자기신뢰 또는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 적응정도에 있어서 중요한 예측변인 중 하나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학교부적응 또는 학교적응과 관련된 사회적 변인들을 살펴보면, 부모를 포함한 가족관련 변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예: 김경숙, 조옥귀, 2004; 이정윤, 이경아, 2004; Chartrand, 1992; Ryan, Stiller, & Lynch, 1994), 그 외에 또래 및 교우관련 변인(예: 문은식, 김충희, 2002;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그리고 교사관련 변인(예: 문은식, 김충희, 2002; Birch & Ladd, 1997)에 대한 연구들도 적지 않다. 교사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뿐 아니라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김정화, 김연주(2006)는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사에 대한 아동의 높은 신뢰감은 아동의 학급에서의 활동성, 교우관계, 학습태도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

서 교사는 아동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사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경화, 손원경, 2005)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교사와의 친밀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문은식, 김충희(2002)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만족스러울수록, 그리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지지적일수록 학생들의 학업동기가 긍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경아, 정현희(1999) 역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교적응의 정도를 높인다고 지적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학교적응의 하위요인들을 밝히는 연구들(예: 김용래, 허남진, 2003; 이규미, 2005; 정순례, 1992)에서는 학교교사가 전반적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요인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학교적응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외국연구들과도 일치하고 있다.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은 학업적 대처, 관여, 자기 조절, 지각된 통제 면에서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며(Ryan, Stiller, & Lynch, 1994), 학업수행 정도나 학교생활 만족도도 높은 것(Birch & Ladd, 1997)으로 나타났다. 또한 Wentzel(1994, 1997)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지적인 태도는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하는 목표, 친사회적으로 행동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목표를 갖게 한다고 하였다. 한편 Kelly와 Corcoran(2003)은 그의 연구에서 교사는 학생의 잠재된 성공이나 실패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학생이 위기상태에 놓여 있을 경우 그

영향력은 강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자아통제 및 자기신뢰의 정도 그리고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학교 부적응을 낮추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동일시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된 연구들이라는 점에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한계점이 따른다. 예를 들어, 자기신뢰의 정도는 학교부적응의 정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학교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그 결과로 자기신뢰의 정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아통제와 자기신뢰라는 개인적 변인과 교사와의 관계라는 사회적 변인이 개인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즉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종단자료를 통한 검증을 실시해보고자 한다.

###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자아통제와 자기신뢰, 그리고 교사와의 애착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아래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바탕으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변화에 자아통제 및 자기신뢰, 그리고 교사와의 애착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의 초기상태와 변화율은 중 2에서 고 1까지 각 학년에서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

통제와 자기신뢰는 시간에 따른 변화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학교생활 부적응의 초기상태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사와의 애착은 각 학년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클 것이라는 가정 아래 각 학년에서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방법

###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 조사의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sup>1)</sup> 패널조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패널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3년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들로서,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3,449명이 선정되어, 매년 한 차례씩 10월에서 12월에 걸쳐 조사에 응하고 있다. 이들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 각각 1,725명과 1,724명으로 남녀의 성비는 50%로 나타났다. 한편 출생연도를 살펴보면, 88년생 이하는 7명(0.2%), 89년생은 2,699명(78%), 90년생은 743명(22%)으로 집계되었다.

### 측정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중학교 2학년용 패널 설문지로 그 중에서 자아통제, 자기신뢰, 교사애착 및 학교생활 부적응과 관련된 문항 15개가 선택되어 사용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아통제에 관한

1)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 자료는 2차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문항 6개, 자기신뢰에 관한 문항 3개, 교사애착에 관한 문항 3개, 그리고 학교생활 부적응에 관한 문항 3개가 선택되었다(표 1).

자아통제 문항은 Grsmick, Tittle, Bursik, & Armeklev(1993)가 확인한 자아통제력의 6가지 요소 중 화기질과 신체활동 선호, 단순과제

선호를 제외한 충동성(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위험한 일의 추구(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자기중심성(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영역에서 각 1개 문항씩 선정하고 인지적 영역에 1개의 문

표 1. 각 변인별 문항

영 역	문 항
자아통제	1.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2.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3.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4.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5.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6. 나는 학교 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
자기신뢰	1.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2.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3.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교사애착	1.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2.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다.
	3.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학교생활 적응	1.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2.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
	3. 비행(범죄)로 학교의 경고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항(나는 학교 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을 추가하여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기신뢰 문항은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자기관여 정도 및 그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총 3문항이 사용되었다.

교사애착 문항은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에서 사용한 4문항 중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문항을 제외하고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문항들은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애착은 비행을 감소시킨다는 Hirschi(1969)의 이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학교생활 부적응에 관한 문항은 총 3문항으로 학교규범 및 질서의 준수 정도와 학업에 관한 질문을 위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의 내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자아통제의 점수는 낮을수록, 그리고 자기신뢰의 점수는 높을수록 각각 자아통제 수준과 자기신뢰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사애착 문항의 점수는 높을수록 교사와의 애착이 높음을 의미하며, 학교생활 부적응 문항의 점수는 낮을수록 학교생활 부적응의 정도가 낮음, 즉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 사용된 도구의 각 하위영역, 즉 자아통제, 자기신뢰, 교사애착,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의 범위는 .56에서 .86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세 시점에서의 신뢰도를 각

각 분석한 결과, 자아통제에 대한 신뢰도 계수  $\alpha$ 는 각각 .65, .69, .69였다. 자기신뢰의 신뢰도 계수  $\alpha$ 는 각 시점에서 .83, .86, .86, 교사애착의 신뢰도 계수  $\alpha$ 는 각 시점에서 .70, .73, .73, 그리고 학교생활 부적응의 신뢰도 계수  $\alpha$ 는 각 시점에서 .56, .65, .67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6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전형적인 종단적 조사인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2005년 전국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하여 3,494명을 추출하였다. 그들을 대상으로 2003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일대일 면접을 통한 제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매년 같은 시기에 추가조사를 실시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3년에서부터 2005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수집된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통계분석은 AMOS 4.0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 중 잠재성장모형 분석이다.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에 따른 개인의 발달 추이 뿐 아니라 발달 추이 안에서의 개인차 또한 볼 수 있어 종단자료 분석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분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Hong & Ho, 2005).

### 결과

잠재성장모형 분석에 앞서 각 변인들에 대

표 2. 연구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 $N = 3449$ )

연구변인	1	2	3	4	5	6	7	8
1. 중2 학교적응	1.00							
2. 중3 학교적응	.454	1.00						
3. 고1 학교적응	.374	.449	1.00					
4. 중2 교사애착	-.196	-.124	-.144	1.00				
5. 중3 교사애착	-.124	-.102	-.102	.302	1.00			
6. 고1 교사애착	-.065	-.074	-.145	.217	.260	1.00		
7. 자아통제	.413	.309	.282	-.166	-.097	-.082	1.00	
8. 자기신뢰	-.163	-.154	-.109	.131	.101	.080	-.098	1.00
평균	1.77	1.70	1.74	2.46	2.61	2.63	2.68	3.46
표준편차	.71	.73	.73	.82	.82	.81	.67	.74

\*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은  $p < .01$

한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은  $.06 \sim .45$ 로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중 교사애착과 학교적응, 자기신뢰와 학교적응 간에는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학교적응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의 정도가 심한 것이므로, 교사애착이 잘 이루어지고 자기신뢰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잘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맥락에서 자아통제의 경우도 자아통제의 값이 높을수록 자아통제가 잘 안되는 경우이므로 자아통제가 잘 될 수록 학교적응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 1수준 분석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관련하여 적합한 잠재성장 모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 가지 유형의 잠재성장 모형을 검증하였다. 제 1모형은 초기치에서 각 시점의 측정치로 향하는 화살표는 모두 1로 고정하고, 변화율에서 각 시점의 측정치로 향하는 화살표는 측정간격이 동일하다는 가정아래 각각 0, 1, 2로 고정하여 측정치들 간의 선형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 2모형에서는 반복측정된 학교생활 부적응의 잠재변인들이 각 시점에서 같은 의미를

표 3. 각 모형별 적합도 지수

	$\chi^2$	$df$	TLI	RMSEA
제 1모형	1376.479	31	.960	.112
제 2모형	1416.888	35	.964	.107
제 3모형	501.727	29	.985	.069
제 4모형	524.376	32	.986	.067

그림 2. 제 4모형(최종모형)

지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잠재변인의 각 요인부하량에 동일화 제약을 가하였다. 검증 결과로서 제 1모형과 제 2모형의 TLI와 RMSEA의 수치를 비교해보면<sup>2)</sup>, TLI의 경우는 .960에서 .964로, RMSEA는 .112에서 .107로 변화되었다. 이는 제 2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제 1모형의 적합도 지수에 비해 조금이나마 좋아진 것으로, 요인부하량에 대한 동일화 제약이 유효함을 의미한다.

제 3모형에서는 반복측정된 학교생활 부적응의 잠재변인들에서 같은 내용의 측정변수들 간에 오차항 공변량을 설정하였다. 예를 들면,

2) 이 연구에서는 TLI와 RMSEA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그 이유로는 이 두 지수가 표본크기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 동시에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한편  $\chi^2$  차이검증은 표본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Anderson & Gerbing, 1988; Marsh & Grayson, 1990)을 고려하여 모형비교 검증에서  $\chi^2$  값은 고려하지 않았다.

중 2 학교생활 부적응의 제 1문항 오차항과 중 3 학교생활 부적응의 제 1문항 오차항간에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이는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서 동일한 측정문항을 가지고 같은 대상에게 반복측정을 한 경우, 오차항 역시 상관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 결과, 제 3모형의 적합도 지수 TLI와 RMSEA는 각각 .985와 .069로 제 2모형의 적합도 지수에 비해 좋아졌다. 특히 RMSEA의 경우,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 .08이하면 보통 적합도, .05이하면 좋은 적합도로 판정(Browne & Cudeck, 1993)되는 것을 고려할 때, 적합도 지수가 현저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4모형에서는 모형의 간명성을 위해 제 3 모형오차항간의 공변량에 동일화 제약을 가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 지수 TLI와 RMSEA는 각각 .986과 .067로, 제 3모형의 적합도 지수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제 4모형을 가장 적합한 잠재성장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최종 모형인 제 4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제 4모형에서 추정한 학교생활 부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은 각각 1.825(표준오차 .014)와 -.021(표준오차 .007)로 모두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중 변화율 -.021은 중 2에서 고 1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학년이 올라갈 수록 학교생활 부적응의 정도가 선형적으로 약간씩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 정도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초기치와 변화율간의 공분산은 -.0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적응의 초기정도와 변화율 간에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제 2수준 분석

제 2수준의 분석에서는 제 1수준의 분석에서 찾아낸 가장 적합한 잠재성장 모형(제 4모형)에 자기신뢰 및 자아통제, 그리고 교사와의 애착이라는 세 변인을 더하여 이 세 가지 변인들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하였다(그림 1). 가설화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chi^2(326, N = 3449) = 4060.644$ ,  $p < .01$ , TLI = .977, RMSEA = .05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연구 모델이 자료에 적합함을 보여준다. 특히 RMSEA의 경우, 기본적인 잠재성장 모형인 제 4모형에서는 .067로 나타났으나, 설명변수로서 자아통제, 자기신뢰, 교사와의 애착을 첨가한 이번 모형에서는 .058로 떨어졌다. Browne과 Cudeck (1993)은 .05이하면 좋은 적합도로 판정한다고 주장하였으나, Hu와 Bentler(1995)의 경우에는 RMSEA의 판정기준을 .06이하로 완화하여 잡고 있다. 보다 최근의 것을 판정기준으로 볼 때, 기본모형에 설명변인이 추가된 연구모형(그림 1)은 적합도 검증에서 수용가능한 모형에 포함된다.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각 경로에 대한 추정치에서 알 수 있듯이, 자아통제와 자기신뢰는 모두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적응 초기치에 대한 자아통제와 자기신뢰의 추정치는 각각 .714와 -.201로 이는 자아통제 및 자기신뢰의 정도가 높을수록 제 1차년도(중 2)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통제→학교생활 적응 초기치의 추정치가 자기신뢰→학교생활 적응 초기치의 추정치보다 높은 것으로 미

표 4. 최종모형에 대한 추정치(표준화계수) 요약

경로	추정치	경로	추정치
초기치 $\leftarrow$ 통제	.714**	중 2 학교생활 적응 $\leftarrow$ 중 2 교사애착	-.169**
초기치 $\leftarrow$ 신뢰	-.201**	중 3 학교생활 적응 $\leftarrow$ 중 3 교사애착	-.080**
변화율 $\leftarrow$ 통제	-.272**	고 1 학교생활 적응 $\leftarrow$ 고 1 교사애착	-.175**
변화율 $\leftarrow$ 신뢰	.072*		

\*\* $p < .01$ , \* $p < .05$

루어 보아 중 2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자아통제가 자기신뢰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기통제(-.272)와 자기신뢰(.072)는 학교생활 적응의 변화율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이 역시 자기통제 및 자기신뢰의 정도가 높을수록 이후의 학교생활(중3 및 고 1) 적응의 변화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자아통제→학교생활 적응 변화율의 추정치가 자기신뢰→학교생활 적응 변화율의 추정치보다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자아통제가 자기신뢰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의 변화율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사와의 애착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각 학년에서의 교사애착은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각 학년에서 교사와의 애착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중 3의 경우가 중 2나 고 1의 경우에 비해 그 영향의 크기가 작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부분에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 적응 초기치와 변화율에 대한 연구모형의 설명량( $R^2$ )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구모형은 초기치 변량의 약 55.1%, 변화율 변량의 7.9%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생활 적응의 초기치에 대한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비교적 높으나 학교생활 변화율에 대한 설명력은 그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3년차 종단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모형분석을 통해 자아통제 및 자기신뢰 그리고 교사와의 애착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서 얻어진 결과를 고찰된 선행연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자아통제와 자기신뢰는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아통제와 자기신뢰가 학교생활 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두 변인 모두 초기치와 변화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의 자아통제 및 자기신뢰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정도의 초기치도 높으며 이후의 학교적응정도의 변화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선행연구결과(예: 김미숙, 2001; 김현숙, 1998; 추미애, 박아청, 2006; Feldman & Weiberger, 1994)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생활 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대한 두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두 변인 모두 변화율에 비해 초기치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자아통제와 자기신뢰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자기신뢰보다는 자아통제가 더 큰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청소년기 초기 또는 그 이전에 형성되는 자기신뢰의 정도와 자아통제 능력은 이후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자기통제의 여부는 학교적응에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각 학년에서 나타난 교사와의 애착 역시 각 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

시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예: 문은식, 김충희, 2002; 이경아, 정현희, 1999)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와의 애착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각 학년에서 교사와의 애착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비교해 볼 때, 중 2나 고 1에 비해 중 3의 경우, 교사와의 애착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작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였으나, 한 가지 가설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입시 및 진로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기라는 점이다. 따라서 교사와의 애착이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다른 학년에 비해서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아통제 및 자기신뢰와 같은 개인적 특성 변인과 교사애착이라는 사회적 변인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교사와의 애착보다는 개인적 특성변인이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파악되지 못하였으나, 교사와의 애착이 청소년들의 자아통제 및 자기신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 개인적 특성 변인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사와의 애착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돋기 위한 대응방안들을 제시해준다. 가장 먼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돋기 위해서는 자아통제 및 자기신뢰와 같이 개인적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아통제나 자기신뢰의 정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형성되어오는 것이며 그 중요성 역시 어린 시절부터 강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도 자아통제와 자기신뢰의 초기치가 가장 중요한 설명변인이었듯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어린 시기부터 이러한 특성의 긍정적 형성을 위한 조기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 내에서 학생과 교사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 유지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청소년들에게 교과목에 대한 지식전달이나 단순한 생활지도를 함으로써 피상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깨닫고 보다 깊이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그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은 청소년들의 경우는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될 것이므로, 이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교사의 심리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패널자료로서 패널자료 자체가 지닌 한계점을 먼저 지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패널조사는 다양한 영역의 변인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특성상 각 변인들을 측정하는 문항 수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수 역시 각 변인들을 심도있게 측정하기에는 그 수가 충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언

급하고자 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의 요인을 예측하는데 있어 개인적 특성변인으로는 자아통제와 자기신뢰, 사회적 변인으로는 교사와의 애착만을 예측변인으로 채택하였다.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있는 변인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의 요인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남학생의 경우가 여학생보다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비행을 나타낼 경향이 크다는 연구결과(이경아, 정현희, 1999)는 연구모형에서의 성차가 존재할 가능성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연구모형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통제, 자기신뢰 및 교사와의 애착관계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동일시점의 자료가 아닌 종단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종단자료가 어느 특정지역에서만 수집된 것이 아니라 충화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한 대단위 전국표본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는 점도 연구결과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김경숙, 조옥귀 (2004). 도시와 농어촌 초등학생의 가정생활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3(3), 385-404.

김동배, 권중돈 (1998).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학지사.

김미란 (2002). 대상관계, 자존감, 자아탄력, 자아통제와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연구. *교육연구*, 14(1), 157-174.

김미숙 (2001). 초등학생의 발표불안과 자기 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 논문*.

김병찬 (1995). 고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 논문*.

김용래, 허남진 (2003). 학습동기와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분석. *홍익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논총*, 20, 5-24.

김정화, 김언주 (2006). 아동이 지각한 교사신뢰 및 학습동기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교육*, 15(2), 117-129.

김현숙 (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남현미, 옥선화 (2001).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7), 37-58,

문은식, 김충희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19-241.

민수홍 (1998). 초등학교 학생의 자기통제력과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27(1), 91-108.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이경님 (1997).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신

- 념과 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동아대학 교 대학원논문집, 22, 403-424.
- 이경님 (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 이경님 (200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자기통제가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1), 77-91.
- 이경아, 정현희 (1999).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2), 213-226.
- 이경화, 손원경 (2005). 아동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구조분석. 아동학회지, 26(4), 157-171.
- 이규미 (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83-398.
- 이옥주 (2003).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77-85.
- 이은희 (2003). 소년소녀가정청소년의 대처전략에 따른 학교적응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6, 226-250.
- 이정윤, 이경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 임유진 (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호성 (1987).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순례 (1992). 현실요법에 근거한 학습방법이 중학생의 교과 및 학교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 논문.
- 정현희 (2003).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 논문.
- 추미애, 박아청 (2006).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아동교육, 15(2), 271-288.
- 하영희, 김경연 (2003).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과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17-30.
- 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청소년용 여성진로장벽 척도의 잠재평균분석. 교육심리연구, 19(4), 1159-1177.
- Allen, J. P., Hauser, S. T., Bell, K. L., & O'Conner, T. G. (1994). Longitudinal assessment of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family interaction as predictors of adolescent ego development and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65(1) 179-194.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 117-148.
- Beck, A. T. (1967).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79.
- Block, J. & Gierde, P. F. (1990). depressive

- symptoms in late adolescence: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personality antecedents.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logy*(pp.334-36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hartrand, J. M. (1992). An empirical test of a model of nontraditional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93-202.
- Doll, B. (1996). Children without friend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policy. *School Psychology Review*, 25, 165-183.
- Feldman, S. S., & Weiberger, D. A. (1994). Self-restraint as mediator of family influences on boys' delinquent behavior: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5, 195-211.
- Grasmick, H. G., Tittle, C. R., Bursik, R. J., & Armeklev, B. J.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 Hart, W. W., Hofmann, V., Edelstein, W., & Keller, M. (1997). The relation of childhood personality types to adolescent behavior and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Icelandic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195-205.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ng, S. & Ho, H.-Z. (2005). Direct and indirect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f student achievement: second-order latent growth modeling across ethnic group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1), 32-42.
- Hu, L-T. & Bentler, P. (1995). Evaluating model fit. In R. H.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Sage.
- Kaplan, H. B. (1979). Anxiety, self-derogation, and deviant behavior. In W. E. Fann, I. Karacan, A. D. Pokorny, & R. L. Willims(Eds.), *Phenomenology and treatment of anxiety*. New York: Spectrum.
- Kelly, P. & Corcoran, C. A. (2003). The classroom teacher's role in preventing school failure. *Kappa Delta Pi Record*, 39(2), 84-87.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ouge, A. W. (1995). *Self-control*. New York: Prentice Hall.
- Marsh, H. W. & Grayson, D. (1990). Public/Catholic differences in the high school and beyond data: A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to testing mean differences. *Journal of Educational Statistics*, 15, 199-235.
- Mischel, W., Shoda, Y., & Peake, P. K. (1988). The nature of adolescent competencies predicted by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687-696.
- Robins, R. W., John, O. P., Caspi, A., Moffitt, T.

- E., & Stouthamer-Loeber, M. (1996). Resilient, overcontrolled, and undercontrolled boys: Three replicable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57-171.
- Ryan, R. M., Stiller, J. D., & Lynch, J. H. (1994).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predic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26-249.
- Wentzel, K. R. (1994). Relations of social goal pursuit to social acceptance, classroom behavior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6, 173-182.
- Wentzel, K. R. (1997). Student motivation in middle school: The role of perceived pedagogical car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 411-419.

원고 접수일 : 2007. 3.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7. 4. 30

게재 결정일 : 2007. 5. 15

## **The effects of self control, self reliance, and attachment to teacher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Hye-Jeong Baek**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self control, self reliance, and attachment to teachers on adolescents's school adjustment with 3,449 adolescents. The data was a 3-year longitudinal data originally collected from the panel of Korean Youth Panel Study by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since 2003. According to the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his study confirmed the effects of self control, self reliance, and attachment to teachers on adolescents's school adjustment. The self control and the self reliance have influences on both the initial status and the rate of change of school adjustment. Also, the attachment to teachers in each year has influence on the school adjustment in each year. These findings are thoroughly discussed.

*Key words : school adjustment, self control, self reliance, teacher attachment*